"16살 지영이의 마음은 아직도 7살입니다."

-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지영이의 이야기 -

꽃다운 소녀로 성장한 16살 지영이의 마음은 아직도 7살 아이입니다.
부모님과 오빠와 살고 있는 지영이는 지적 장애로 말도 어눌하고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지영이의 부모님은 먹고 살기에 바빠 소녀로, 여자로 성장하고 있는 지영이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는 것에 무관심합니다. 집안도 돌보지 않아 여기저기에 잡동사니가 쌓여 있고 벽면에는 곰팡이가 가득합니다. 지영이는 중학생이 되도록 혼자서 목욕하는 법도 배우지 못해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보다 못한 주위의 권유와 설득으로 얼마 전부터 정부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에 다니며 혼자 생활하는 법을 하나하나 배우고 있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으로 살아갈 지영이가 계속적인 치료와 교육을 통해
험난한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지영이의 치료와 교육비로 지원되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 장애 청소년들의
밝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용됩니다.

후원문의 : ☎ 02-3396-1004